



6일 카타르 도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 전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질주 마친 태극전사 이젠 아시안컵 향해 달린다



다음 A매치 내년 3월 시작...아시안컵 본격 준비 체제 돌입 카타르서 2024년 1월 개최 유력 속 64년만의 정상 탈환 적기

카타르에서 '알리안의 기적'을 일으키며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일궜으나 '첫 원정 8강'에는 이르지 못한 태극전사들은 이제 새해를 기약한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1-4로 패한 것을 끝으로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0월 말 국내와 위주의 마지막 소집 때부터 한 달여를 월드컵만 바라보며 고락을 함께한 선수들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간다.

손흥민, 김민재(나폴리),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유럽파와 중동파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리그 일정에 다시 뛰어 들어야 한다.

손흥민과 황희찬이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는 이달 26일, 이강인(마요르카)을 볼

수 있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29일 재개된다.

김민재가 활약하는 이탈리아 세리에A는 내년 1월 4일, 이재성(마인츠)과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이 속한 독일 분데스리가는 내년 1월 20일부터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K리그와 J리그 선수들은 다음 시즌 준비에 돌입한다.

계약 기간이 이번 월드컵까지이던 벤투 감독이 브라질전을 마치고 한국 대표팀을 떠나겠다고 밝힘에 따라 새 사령탑 선임이 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FIFA가 정한 다음 A매치 기간은 내년 3월 20~28일이다.

이때부터 대표팀은 본격적인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비 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3 아시안컵은 애초 내년 6~7월 개최 예정

이었으나 개최지인 중국이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개최권을 반납하면서 개최국을 다시 정했다.

한국도 유치 신청서를 내고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이번 월드컵을 개최한 최신 인프라를 앞세우고 AFC에 대한 대규모 지원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카타르가 낙점됐다.

다음 아시안컵 장소가 카타르로 결정되면서 이번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여름 더위를 피해서 열릴 공간이 커졌는데, 2024년 1월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1956년과 1960년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한 뒤 60년 넘게 아시안컵 정상과는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의 기량이 절정에 오른 가운데 열릴 이번 아시안컵은 한국 입장에서 정상 탈환의 적기로 꼽힌다.

각국 대표팀은 내년 3월 이후 6월 12~20일에도 A매치 2경기를 더 치를 수 있으며, 9월과 10월, 11월에도 A매치 기간이 각각 예정돼 새 사령탑 체제에서 아시안컵 대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도영 첫 시즌은 '바이킹'

KIA 슈퍼루키로 출발했지만 실망과 희망 모두 경험한 한해 재밌었지만 무서울 때도 있어 내년엔 나의 야구 보여주겠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사진)에게 2022 시즌은 '바이킹'이었다.

김도영은 올 시즌 KBO리그에서 가장 시선을 받은 신인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입단 전부터 '슈퍼루키'로 화제를 모았던 김도영은 시범경기에서 고졸 투기 사상 첫 타격 1위에 올랐다.

김도영은 시범경기 활약을 바탕으로 타이거즈 역사상 첫 '고졸 신인 개막전 토타자' 타이틀도 장식했다.

하지만 시즌 초반 야수진의 동반 부진 속에 김도영의 입지가 좁아졌다. 예상과 다른 부담 많은 봄날을 보냈지만 김도영은 올 시즌 3개의 홈런과 13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KT와의 시즌 최종전에서는 0-7로 뒤진 9회말 팀의 영봉패를 막는 적시타를 기록하면서, 19번째 타점과 함께 기대감 속에 시즌을 마무리했다.

김도영은 아쉬움과 기대, 실망과 희망을 모두 경험한 데뷔 시즌을 '바이킹'으로 표현했다.

김도영은 "바이킹이었다. 재미있었지만 무서울 때도 있었다"며 올 시즌을 이야기했다.

이어 "야구 잘 될 때가 재미있었다. 홈런 칠 때 재미있기는 했는데 팀 상황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안 좋아서 좋은 걸 몰랐었다. 그 이후에 잠실에서 홈런치고 그릴 때 분위기가 좋았다. 그때가 제일 좋았던 거 같다"고 돌아봤다.

김도영은 7월 1일 SSG와의 원정경기에서 5-5로 맞선 7회초 김민준을 상대로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트렸다. 59경기 146타석 135타수만에 기록한 프로 첫 홈런. 두 번째 홈런은 이를 뒤인 7월 3일 SSG와의 경기에서 기록했다.

하지만 막내의 홈런쇼에도 팀은 SSG와의 3연전에서 모두 1점 차 패배를 당하면서 7연패 늪에 빠졌다.

김도영의 세 번째 홈런은 7월 12일 잠실 LG전에서 장식됐다. 이날 4회 김도영은 스리런을 날리면서 팀의 7-1 승리를 이끌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기회를 기다리던 시즌 초반이었다.

김도영은 "4, 5월에 벤치에 오래 있을 때 그때가 힘들었고, 무서웠다"며 "슬럼프가 있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훈련량을 더 많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뜨거웠던 시작에 비하면 아쉬운 시즌이었지만 김도영에게는 미래를 탄탄히 다지는 '배움의 시

간'이 됐다.

김도영은 "올 시즌 정말 많이 배웠다. 중·고등학교 때보다 올해 더 많은 걸 배웠다"며 "프로에서의 공수주는 모두 달랐다. 특히 타석에서 고등학교 때와 똑같은 스피드인데 힘이 아예 달랐고, 변화구 질 자체가 다르고 수준이 높았다"고 이야기했다.

차원이 다른 변화구에 실패도 경험했지만, 경험을 통해 자신감도 얻었다.

김도영은 "전반기 끝날 때쯤에 공이 보여서 적응을 했고, 적응하니까 (나쁜 볼에) 잡히지기도 했다"며 "올해 시작은 안 좋았지만 마무리는 좋았다. 시작이 좋았다가 마무리가 안 좋았다면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다. 마무리 좋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즌을 잘 마무리한 김도영은 겨우내 부족한 것을 채워 '자신의 야구'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김도영은 "올 시즌 타석에서 내 모습을 못 보여드렸다. 과감하고 공수주에서 팬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모습인데 많이 못 보여드렸다. 이번 겨울 올해 부족했던 것 채워 넣도록 하겠다"며 "올해 생각도 못 할 정도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 기대에 부응 못했다. 기대,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내년엔 잘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떠나는 벤투 "4년 동행 환상적...평생 기억할 것"



한국 감독직 재계약 안하기로

한국 축구를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파울루 벤투(53·포르투갈·사진) 대표팀 감독이 4년 4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벤투 감독은 6일(한국시간) 브라질과의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1-4로 패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표팀 감독직 재계약을 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수들과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내 결정을 말했다. 결정은 이미 지난 9월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벤투 감독에 따르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이번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이 끝난 뒤 벤투 감독에게 재계약 제의를 했고, 벤투 감독은 지난 9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로써 벤투 감독과 한국 축구의 '4년 동행'은 이8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마무리됐다.

벤투 감독은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직후인 2018년 8월 28일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4

년 넘게 팀을 이끌어오며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뤄냈다. 이어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는 조별리그에서 1승 1무 1패를 거두며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지휘했다.

벤투 감독은 단일 임기 기준 한국 대표팀 최장수 사령탑이다.

벤투 감독은 "이제 미래를 생각할 때"라면서 "일단 포르투갈로 돌아가 쉬면서 재충전하고 그 뒤에 향후 거취에 대해 선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이 이뤄낸 것에 대해 고맙다. 그동안 한국 대표팀을 이끌 수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대표팀을 맡은 것에 대해 "환상적인 선수들이었다. 프로로서 대단히 열심히 했다. 인격적으로도 매우 훌륭했다. 나와 내 코치들에게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나와 함께 일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 특히 함께 일한 두 명의 한국인 코치(최태욱·마이클 김)에게 고맙다. 그들이 우리를 정말 많이 도와줬다. 한국 대표팀을 이끈 경험을 평생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맨유 출신 킨 "춤 경연 대회냐...브라질 세리머니 무례" 지적

브라질 선수들이 한국을 상대로 골을 넣을 때마다 선반인 댄스 세리머니가 상대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6일(한국시간) 아일랜드 국가대표 출신으로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로이 킨(51)이 한국과 브라질의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보며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다.

영국 ITV에서 해설하는 킨은 브라질이 골을 넣을 때마다 펼친 댄스 세리머니를 두고 "춤 경연 대회냐"며 "비시우스 주니오르의 첫 골은 멋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댄스 세리머니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은 이것을 브라질 문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상대 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킨은 "네 골을 넣었는데 골을 넣을 때마다 댄스 세리머니를 했다"며 "첫 골이 들어갔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골을 넣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심지어 감독까지 함께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았다"고 브라질 선수들이 상대 팀인 한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함께 해설하는 리버풀 출신의 그레이엄 스네스(69·스코틀랜드)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스네스는 "골을 넣을 때마다 댄스 세리머니를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고 거들었다.

다만 이들과 함께 해설하는 나이저리아계 잉글랜드 축구 선수 출신 에니 알루코는 "브라질식 파티를 보는 것 같아 좋았다"며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네이마르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똑같이 행동한다"고 브라질 대표팀의 흥겨운 세리머니를 옹호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올빼미,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2관	올빼미, 원피스 필름 레드
3관	압구정, 데시벨
4관	올빼미, 압구정
5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6관	압구정
9관	프레이 포 더 테블, 스페이스 키드: 우주에서 살아남기
7관 씨네커틀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 원피스 필름 레드, 동감, 헤이징, &라키&라키비밀의문
8관 씨네커틀	올빼미, 탄생, 압구정, 크리스마스 캐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송년음악회
蓋世之才
개세지재, 蓋世之才, 개세지재

2022. 12. 15. 19:30
광주교류시립문화회관 공연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2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蓋世之才(개세지재)
일시 : 2022. 12. 15.(목) 19:30
장소 : 빛고을시립문화관
문의 : 062-415-5403